깐깐해진 제약·바이오 외부감사 기업, '적자 확대' 실적변동 속출

'新 외감법' 지정감사·감리 영향

영업이익은 줄고 적자폭은 늘어

깐깐해진 외부 감사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부 감사를 받은 이후, 거래가 정지되거나 기업들이 공시한 잠장 실적이 변동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신(新) 외감법'으로 불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정감사와 감리가 까다로워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어젠은 지난 15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과 매출원가가 문제가 됐다. 케어젠은 현재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과 같은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통상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 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케어젠의 주총이 오는 26일인 것을 감안하면, 케어젠은 18일 오후 6시 이전 까지 모든 요구사항이 해소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케어젠은 홈페이지 주주 공지를 통해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당사의 영업이나 재무상태는 건실하며,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케어젠은 거래 정지 직전 시가총액 821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3·4분기까지 매출 455억원, 영업이익 266억원을 낸 우량 기업이다.

외부 감사 이후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폭이 확대된 기업도 속출했다. 지난해부터 연구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처리하는 감사기준이 까다로워진 영향이 컸다.

대웅제약은 외부 감사 결과 순손실이 기존 53억원에서 154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종속회사의 무형자산 감액에 따라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미팜은 적자폭이 늘었다. 영업 적자는 기존 59억원에서 62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52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커졌다. 회사측은 "종속법인의 인체신약개발비용 등이 경상개발비로 반영됐고, 매출채권에 대한 전체기간 기대손실 손상금액을 인식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차바이오텍은 감사 이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기존 36억원 흑자에서 17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순손실 폭도 기존 15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어났고, 강스템바이오텍은 연결 기준 순손실이 기존 1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확대됐다. 강스템바이오 관계자는 "전환사채에 포함돼 있는 내재파생상품에 대한회계처리정책변경으로 비교재무제표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동제약도 외부감사 이후 영업이익이 120억원 가량 줄었고, 녹십자셀은 당기순이익이 3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업계는 새로운 외감법 시행으로 올해도 회계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매출채권 문제로 회계 감리 대상이 된 것처럼 외감법이 깐깐해지면서 우량 기업들도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공공빅데이터로 암 잡는 마이크로RNA 발굴

UNIST 남덕우 교수팀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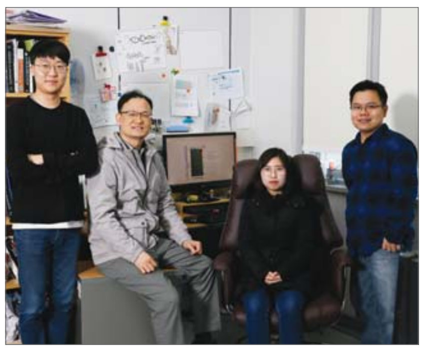
암 억제 세포 신호조절 경로 발견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생명과학부 남덕우 교수팀이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을 억제하는 마이크로RNA와 이와 관련한 세포 신호조절 경로를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크로RNA는 19~23개 정도의 짧은 연기로 이뤄진 RNA 분자로,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포 활동과 암, 당뇨 등 만성질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남 교수팀은 15년 이상 차곡차곡 쌓인 유전자 발현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새로운 분석 전략을 개발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각종 질병과 조직 특성, 세포 분화, 약물처리 등 다양한 세포 조건에 따른 5000여개의 데이터 세트를 가공해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를 수집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생명과학부 남덕우 교수팀이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을 억제하는 마이크로RNA와 이와 관련한 세포 신호조절 경로를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진환 연구원, 남덕우 교수, 윤소라 박사, 하이 응우옌 박사. /뉴시스

또 마이크로RNA의 염기서열에 기반한 타깃 유전자(마이크로 RNA의 조절을 받는 대상 유전자) 집단의 정보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459개의 인간 마이크로RNA에 의한 조절 네트워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바이클러스터링이라는 양방향 군집화 분석을 통해 마이크로 RNA가 조절하는 유전자 집단과 관련 세포 조건을 동시에 제시해주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에 바이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하면 줄기세포나 특정 질병 등 다양한 세포 조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RNA 조절 네트워크를 더 정확하게 발굴할 수 있다.

가령 유방암이 어떤 유전자들의 발현과 연결돼 있고, 이들 유전자를 억제하는 마이크로RNA가 무엇인지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로 유방암 발달에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를 miR-29 등 적은 수의 마이크로RNA들이 집중적으로 억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울산=최인락 기자 remark@

소아용 인공혈관, 오늘부터 공급 재개

국내 공급이 중단됐던 미국 고어 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이 18일부터 공급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에 진행된 고어와의 긴급화상회의 결과,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소아용 인공혈관, 봉합사, 인조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공급이 재개되는 제품은 인공혈관 7개 모델, 봉합사 8개 모델, 인조포 1개 모델 총 16개로, 복지부는 공급일자를 조율 중이다.

복지부가 앞서 고어사와 긴급 공급하기로 합의한 20개 소아 폰탄수술용 인공혈관은 이날 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고어는 2017년 10월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고어가 독점 공급하던 소아용 인공혈관 등의 재고가 바닥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무한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세경 기자

교원웰스 '시스템 정수기' 獨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교원그룹은 교원웰스에서 선보인 '웰스더원 시스템 정수기(사진)'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제품디자인 본상과 UX 부문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웰스더원 시스템정수기는 물이 출수되는 곳과 정수시스템인 필터링 서버 본체를 분리해 새로운 정수기 사용 환경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 받았다. 출수부와 필터링 본체를 독립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편의성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기존 정수기 사용 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또 출수부는 슬림한 사이즈와 우아한 곡선으로 외관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해 주방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자 재질과 칼라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눈에 띈다.

UX 부문에서는 지름 8.8㎝의 슬림한 크기에 어울리는 원형 형태의 조작부를 적용하고 터치 휠과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세련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갖췄다. 터치 휠을 적용해 직관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의 온도와 양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조작부 중앙의 LCD 디스플레이는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봄맞이 '뷰티레스트 매트리스' 10% 할인

시몬스, '스프링 프로모션' 진행

시몬스는 봄을 맞아 '스프링(Spring)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스프링 프로모션'은 시몬스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컬렉션의 특정 인기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매트리스는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인 갤러리 및 백화점 매장에선 '헨리', '윌리엄', '헬렌' 3종을, 공식 대리점에선 '바이브', '바나', '비아테', '이터너티' 4종을 10% 싸게 공급한다.

시몬스는 또 전국 공식 대리점 및 시몬스 직영 갤러리 매장에서 36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 350만원 이상 구입시 40만원 상당의 시몬스의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호텔 침구 세트를 증정하는 '웨딩 프로모션'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라지킹', '킹오브킹' 대형 사이즈의 매트리스에 한해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 사이즈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시몬스 침대의 '스프링 프로모션'은 전국 시몬스 침대 공식 매장에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5G 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5G 포럼 스마트공장위원장 김성룡 교수, 5G 포럼 집행위원장 김동구 교수, 이노비즈협회 김종갑 상근부회장,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의장사 텔스타홈멜 임병훈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協-5G포럼

맞춤형 스마트공장 확산

이노비즈협회(중소기술혁신협회)가 5G포럼과 손을 잡고 회원사들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공장 확산에 나섰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이노비즈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입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결성한 바 있다. 이후 중소기업형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기술 교류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입기업을 발굴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5G포럼은 이노비즈기업 스마트공장 내 5G 기술 확산 및 표준화 모델 구축을 위해 기술 교류, 자문, 공동 세미나, 수요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